



2면
전북, 스마트 금융
날개를 달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음 2월 12일) 제24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일식 독당 보다는 다당제 구도가 더 합리적”

전국이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도내 선거 열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과거 민주당만이 싹쓸이 하던 분위기와 대조적 양상도 보인다.

과거 전북에서 민주당이 제 1야당이면서 여당의 지위도 함께 누리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유행어처럼 변했던 “깃발만 꽃으면 당선”이라는 수식어이다.

이렇다 보니 전북발전을 위해 일당 체제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지역민 J씨는 “과거처럼 민주당만이

“도내 민주당 공천확정자 초·재선들 뿐 전북도당내 경선 불공정 목소리도 커져”
연동형 비례제는 다당제를 위한 것...

다 차지하면 독선만이 있을 뿐이다.”며, “일식 독당 보다는 다당제 구도가 더 합리적이다.”며,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일당 독식은 절대 안된다.”고 일갈했다.

정치발전과 전북발전이란 과제 속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기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도내 민주당 공천 확정자들이 초선과 재선으로 이루어진 점이다.

전주에 사는 B씨는 “민주당 공천 확정된 사람들 면모를 보니 초선과 재선으로 이루어져서, 초선은 국회 돌아가는 것 배운다 시간 다 가고, 재선은 중량감이 떨어져 지역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상황을 직

시했다.

일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바램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다수 나와 준다면 지역발전 속에 도민들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해석되어진다.

또한, 도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잡음도 일고 있다.

민주당 공천후보로 참여 했던 A후보는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 됐다.

A후보는 “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말해 주지 않고 탈락된 것에 대해” 분노했다. 급기야 이유 없는 탈락에 대한 명분으로 시민후보로서 민주당 탈당과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

이와 다른 양상도 보인다.

민주당 전주 K예비후보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민주당 전주 L예비후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변화로 지난 선거법 개정이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통한 소수의견도 존중 될 수 있는 길도 더 열리게 됐다.

그동안 소선거구제하에 양당이 독식하던 비례의석도 물 건너가고 소수 정당들도 비례 의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선거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되어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또한 민주정치의 요체인 정당 정치에 적합 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소수당에게도 의석을 배분하여 소수의사에 대한 다수의사의 횡포를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지난 40년의 정치사는 거의 양당 구조에서 비례의석을 나눠가짐으로써 소수의견은 제대로 반영 되지 못했다.

이번에 처음 치러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취재반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추경예산 신속 집행해야”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서

송하진 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송 지사는 5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달 초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확산에 노력하는 동시에, 추경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도민들의 얼어붙은 경제 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물리적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자는 보건 캠페인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이 집단감염인 점에서 착안해 시작했다.

송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확산을 위해 공직사회에서부터 향후 1~2주간 종교집회 등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예방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도민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구내식당의 이용시간을 총괄로 구분하고 배식 시에 앞사람과 간격 유지하기, 한 방향으로 식사하기 등을 실시하고, 청사 출입구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

전북도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5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비대면 식사를 하고 있다.

일원화와 청사 출입시 공무원증 패용 손소독제 사용 등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송 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확산 조치와 별도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추경예산의 신속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확진자 방문 접점 임대료 지원 등을

포함한 긴급추경예산 245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와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에 이달 중순이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추경예산까지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역체계 보완’, ‘도민생활 안정’ 등 시급한 사안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얼어붙은 경제와 도민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이미 중앙정부에 판매시간 통일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며 “도와 전북도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 풀세 우기, 번호표 배부, 미구입자 우선 안내 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이 있으면 시군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신천지 시설 14곳 추가 폐쇄

중앙방역대책본부서 넘겨받은 자료 13·도민 제보 1곳 등 전북도, 총 88곳 폐쇄 긴급방역 실시·매일 지속 모니터링

전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의 도내 종교시설 14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행정처분하는 등 모두 88곳의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도는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신천지 시설자료 13곳과 도민 제보 1곳 등 신천지 종교시설 14곳을 확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도가 폐쇄 등의 조치를 한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은 모두 88곳으로 늘었으며, 교회 5곳과 문화센터,

복음방, 사무실 등 부속시설 83곳이다. 88곳 중 신천지 공개 64곳, 정부 자료 13곳, 도민 제보 11곳이다.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지난달 26일 신천지 시설 66곳(신천지 공개 64, 도민 제보 2)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도민 제보와 정부 자료를 통해 지난 달 28일 6곳(도민 제보), 지난 2일 2곳(도민 제보)을 추가하는 등 모두 88곳을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점검을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유치로 국비 13억 확보

전북도는 논에 용·배수 체계를 개선해 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범용화 시범사업’을 유치로 국비 1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농지범용화 시범사업은 작년말 농식품부에서 신규로 기획한 사업으로 전국 4개소를 선정했으며,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논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면서 사업면적의 10% 이상 공공임대용 농지가 있는 50ha 이상의 지구를 대상으로 농수로의 수초 제거

및 준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옥성지구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대상지는 김제시 옥산면 옥성리, 홍산리 일원으로 과거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주 재배 작물인 콩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